

10/30/16

설교 제목: 성찬의 의미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11:23-32

(고전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절관주** 갈 1:1

(고전 11: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절관주** 레 10:1, 대하 30:18, 히 10:29

(고전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전 11: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30)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절관주** 출 15:26, 삼하 12:14

(고전 11:31)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전 11: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종교는 제 각각의 예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성례는 주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교회의 예식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세례, 견진(믿음의 확신을 확인), 성체, 고해, 혼인, 서품(신부 안수), 임종 성사 등 일곱 성례를 행하고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성례만을 행합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이 지키는 성례의 수가 다른 이유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기준으로 성례를 정한 반면 카톨릭은 성경 뿐만 아니라 카톨릭의 전통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성례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성례가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성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적인 표이며 은혜 받는 수단입니다.

개신교의 성례 중 세례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예전입니다.

사람들은 세례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노라”를 외치며 세례를 베푸는 것에서부터 유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구약 창세기 때부터 행해졌습니다.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8) 내가 나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 17: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세례 대신에 남자의 성기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할례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면적인 할례를 받게 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공적으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출발을 선포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성찬을 보겠습니다.

성찬의 기원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430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종살이에서 놓아 떠나보내 주려하지 않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9 가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애굽 땅 각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이 10 번째 재앙으로부터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집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것을 명령하시고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애굽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었고 드디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해마다 이 날을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갔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 명명하여 기념하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1 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 하여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포도주와 함께 마시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한 고난과 그들을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던 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고전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고전 11: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을 떼어 주시며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나누시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유월절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떡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표현한 곳이 또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6 장입니다.

요한복음 6 장은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이만 명 정도는 족히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바로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종말에 오실 '그 선지자'가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러기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는데 그럼에도 다음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 왔다고”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6: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 6: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요 6: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듭 거듭 말씀하십니다.

(요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6: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라 곧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시며 그 살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을 먹는 것은 단순히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마음에 모셔들이는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다음은 예수께서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종족이나 나라 간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비준 의식을 했습니다.

만일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들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출 24: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출 24:6)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출 24: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 24: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것을 하나님과에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하는 비준 의식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피를 그냥 '언약의 피'라고 하지 않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합니다.

(히 9: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기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단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여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인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 가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고전 11: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는 '기억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쓴 나물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도록 하신 이유는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성만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합니다.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끝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고전 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전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전 11: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대해 믿음없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없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일시적인 징계가 있을 것임을 언급합니다.

(고전 11:30)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성만찬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면 영적 병약함과 죽음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연약함과 죽음까지도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시적인 징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징계는 영원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징계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고전 11: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일시적인 징계는 그리스도 재림시 영원한 심판을 막기 위한 채찍질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한시도 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발판으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는 값없이 얻은 구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명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예수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